

2008학년도 논술시험 관련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일시 : 2006. 6. 1(목) 11:20

장소 : 상남경영원 아이리스 홀

연세대학교 입학관리처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문제 예시

1. 연세대학교 논술고사의 성과

- 그 동안 연세대학교에서는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갖춘 우수 학생을 선발하였음.
- 선발된 학생들은 본 연세대학교가 지향하는 창의적, 국제적, 전문 지식인으로 교육되어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였음.

2. 논술 고사 문제 예시의 배경

- 2008년도 대학입시의 외형적 변화 : 내신 성적의 등급화와 수능 시험 성적의 9등급 표기.
- 본 대학교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측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술고사를 계속 실시하되,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인문사회계열은 물론 자연계열에도 실시하기로 함.

3. 논술 문제의 출제 방향 : <다면사고형 논술>

-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각 과목 단위로 습득한 개별 지식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고 다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고전 텍스트 논술에서 지향하던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과학, 자연과학적인 논리력과 분석력을 결합하여 글로 구성할 수 있는 논증 능력의 측정.

- 인문사회계열(논술 I)과 자연계열(논술 II)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출제하되 제시문이나 문제의 비중에 차이를 둠.

- 교육부의 논술 고사 지침 준수

교육부에서는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을 논술로 규정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특정 교과 지식의 측정을 하지 않는 문제, 다양한 답이 가능한 문제, 수학·과학 등의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 등을 출제하도록 지침을 정한 바 있음.

4. 다면사고형 논술 고사의 효과

- 창의적이고 다면적, 통합적 사고를 하는 우수한 학생 선발.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기여.

연세대학교 다면사고형 논술의 능력은 평소에 고전에 대한 풍부한 독서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 교과목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배양될 수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단순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수업과 글쓰기 등이 행해지면 논술의 능력도 얻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토론식 수업, 형성 평가 등의 활성화).

-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관련성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획득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과도 부합됨. 따라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다면적,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생각함.

논술 I 문제 설명

1. 출제의도

- 본 문제는 수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력, 사고력과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한 다면적 사고형의 논술 문제이다. 수험생들에게 단순히 수 학문제를 풀게 하기 보다는 수리적 연상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얼마만큼 이를 사회현상의 분석에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본 문제는 정확한 모범답안이 있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수리적 해법을 우리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균형 현상들에 접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에 충실한 문제해결 관점을 제기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본 문제의 균형과 질서는 평등 혹은 불평등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해소, 즉 불균형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2. 제시문 설명

- 제시문 (가)
주어진 삼각형 T 의 내부의 한 점 O 와 삼각형 T 의 각 꼭지점을 연결하면 O 를 꼭지점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형 3개를 만들 수 있다. 무게중심 점 O 의 고유좌표는 삼각형 T 의 면적(A)과 새로이 생성된 각 삼각형의 면적(A_i) 비, 혹은 삼각형 T 의 면적(A)에 대한 각 꼭지점을 포함하는 부분 삼각형의 면적의 합의 비로 활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 무게 중심 점 O 가 삼각형의

어느 한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고유좌표가 변하여 특정 값으로 접근하게 된다.

○ 제시문 (나)

<도표 1>의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또한 <도표 2>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조사가구를 소득순으로 5등분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평균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시문 (다) (라)

제시문 (다), (라)는 평등의 원칙과 자원의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의미하는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정치체계를, (라) 정약용의 여전제에서는 공동체에서의 공동 경작과 국가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노동량에 따른 배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평등은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이 자원배분을 통한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 노동력의 투입여부에 따른 차등적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정한 (불)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다), (라)의 전반에 걸쳐 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질서와 균형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 II 문제 설명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학생들이 단순한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적절한 가정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며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분석력과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한 다면사고형의 문제이다.
- 이 문제는 정확한 하나의 풀이와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수리적 해법을 우리의 사회 및 자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접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 관점을 넓히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문제 1>과 <문제 2>에서는 국내인구분포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사회 및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엄밀한 계산보다는 주어진 자료의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3>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의 논리적 해석 및 이를 응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설명

- 제시문 (가)

향후 우리나라는 출산을 저하 및 사망률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위에 제시된 도표들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 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도표 1>은 2004년까지의 총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자료이며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 ~ 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도표 2>는 연령층별 인구비율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0~14세인 유년인구는 총인구의 16.3%,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는 72.8%,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0.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시문 (나)

의학 발달 등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국가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수명을 완전히 채우는 새로운 삶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티브 존스의 『유전자 언어 *The language of genes*』에서 발췌한 이 제시문은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후로 인간의 진화에 크게 작용했던 생존을 통한 자연선택력은 크게 약화된 반면, 생식력에 의한 자연선택이 미래에 일어날 인류의 진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많은 국가에서(우리나라 포함) 인간의 평균 수명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식기능 이후까지 생존함으로써 치명적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③ 저출산 현상이 전 국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출산율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여기에 생존에 비해서 생식이 훨씬 중요한 자연선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의 유전학적 형질 변화라는 질적인 문제도 예지할 수 있다.